

UNSENTIMENTAL EDUCATION | JANUARY 30 – MARCH 9, 2024

Heecheon Kim, Jeongsu Woo, Sikyung Sung, Young-jun Tak

## ABOUT THE EXHIBITION

BB&M은 젊은 전속 작가 4인 (김희천, 성시경, 우정수, 탁영준)의 단체전 《언센티멘탈 에듀케이션(Unsentimental Education)》을 2024년 1월 30일부터 3월 9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19세기 후반 프랑스 당대, 새로운 세대의 감성적 특이성과 의식을 투명하게 드러낸 귀스타브 플로베르(Gustave Flaubert)의 소설 『감정 교육(Sentimental Education)』(1869)에 빗대어, 오늘의 감수성과 미감을 이성적 사고와 논리를 통해 시각적 언어로 풀어내고 있는 젊은 예술가들에 주목한다. 전시에서는 가상과 현실, 사회문화적 차이와 경계, 구상과 추상 사이를 오가며 발전시킨 참여작가들의 주요 영상 작품과 신작 회화가 소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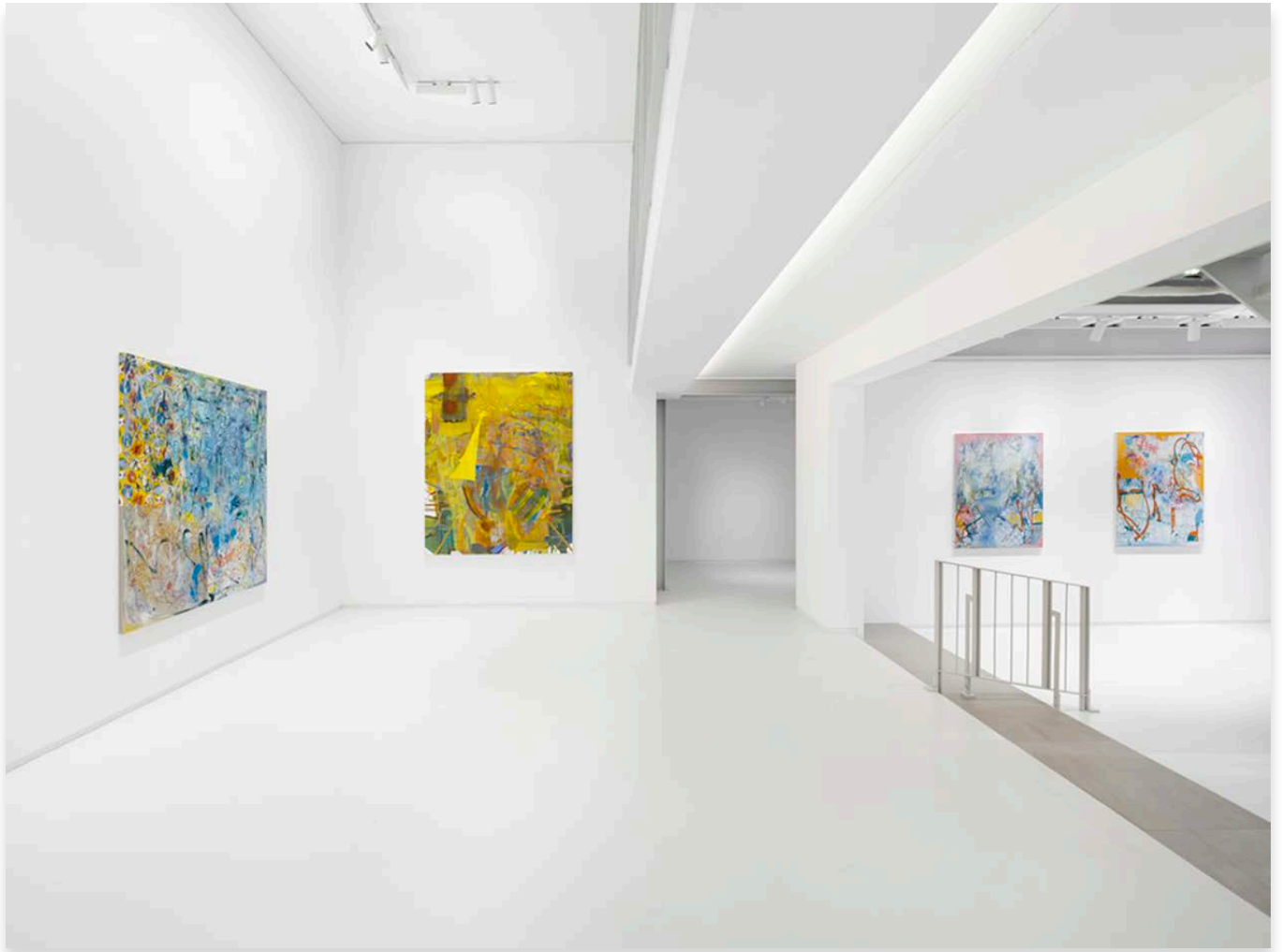
전속작가로 영입 된 후 처음으로 BB&M 기획전에 참여한 탁영준은 영상에서부터 조각, 평면, 설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인간의 믿음과 신념 체계를 구성하는 사회문화적 메커니즘을 관찰하며, 과학과 기술을 초월한 믿음이 사회와 집단적 무의식에 미치는 영향과 그 구조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컬렉션인 율리아 슈토츠크 재단(Julia Stoschek Foundation)에서 개인전을 여는 등 현재 베를린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작가는 《목요일엔 네 정결한 발을 사랑하리(Love Your Clean Feet on Thursday)》(아틀리에 에르메스, 서울, 2023)를 통해 국내에서는 첫 번째 개인전을 가졌다. 그는 전시에서 일련의 영상과 조각을 통해 귀어에 대한 일부 혐오적 시선에 근원적 질문을 던지며, 종교적 신념이 사회 규범으로 굳어지는 과정과 이를 넘어선 혼종성이 지닌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포착했다. 이번 전시 참여작 <Wohin?>(2022)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작품 제목인 'wohin'은 '어디로 가니?'라는 뜻의 독일어로, 영상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백미러에 비치는 두 남성을 보여준다. 작가의 주제의식을 간결하게 상징화한 미장센과 마치 오라토리오를 떠올리게하는 웅장하고 신비로운 화음은 등장인물들의 여정에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를 부여해 주는 듯하다.

최근 런던 헤이워드 갤러리(Hayward Gallery)에서 개인전 《더블 포저(Double Poser)》(2023)를 개최한 김희천은 현재 한국 현대미술의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작가로 손꼽히고 있다. 그는 기술이 구축해 낸 세계의 작동방식에 관심을 가지며 이를 통해 현대인이 경험하는 독특한 인지적 감각에 대한 동시대적 화두를 던진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초기 작품인 <바벨>(2015)을 상영한다. 이 작품은 <Souleseek/Pegging/Air-twerking>, <랜לי>와 함께 서울의 도심 환경을 배경으로 자전적 이야기를 풀어낸 3부작 영상 중 하나다. 이를 통해 작가는 미술계 안에서 빠르게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그를 '포스트 인터넷 아티스트'로 호명시켰다. 하지만 김희천의 작품은 단순한 매체적 탐구나 세대론에 국한되어있기보다는, 오히려 일상에 기술이 도입되면서 벌어진 사회 전반의 보편적 상황을 다루고 있다. 특히, 그는 탈락된 신체성과 가상현실화된 시공간으로 인해 혼돈을 느끼는 자신과 주변의 상황에 주목하는데, 이는 페이스 스왑 앱,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대중문화와 친숙한 코드를 자연스럽게 작품에 활용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작가의 관심사는 2023년 풍피두센터 메츠에서 선보였던 초기작 <썰매>(2016)에서부터 <커터3>(《게임사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23)등에도 이어지고 있다.

앞선 두 작가의 영상작품이 블랙 박스 안에서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양식 그리고 기술과 인간의 혼종성에 관한 관점을 보여준다면, 또 다른 두 명의 참여작가 우정수, 성시경의 회화는 갤러리 1, 2층의 화이트 큐브를 중횡하며 이미지의 시간성과 보편성의 관계를 재구성한다. **우정수**는 서로 다른 시대의 삽화와 신화, 서사극에 등장하는 에피소드의 단편들을 해체하고 재편집해 자신만의 화풍을 만들어왔다. 작가는 역사적 맥락을 벗어난 이미지의 이면을 주제로 거침없는 붓의 움직임과 섬세한 판화 기법, 특유의 드로잉을 기반으로 냉소적이면서도 유머러스하게 오늘의 세계를 그려낸다. 《제주비엔날레》(2022), 《젊은 모색》(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21)등 에서 보여줬던 대규모 회화 설치를 연상케하는 그의 이번 신작은 기존 작품에서 특징적으로 발견됐던 화면 위의 수 많은 레이어들이 겹쳐져 있는데, 다양한 문화와 취향을 기호화한 패턴의 패브릭 그리고 작가의 유년시절 만화 속에서 접했을 법한 캐릭터들의 모습들이 뒤섞여있다. 이들은 거대한 이미지의 파도 위에서 서로 전복되고, 끊임없이 새롭게 생성되며 현재 우리가 마주한 사회적 풍경을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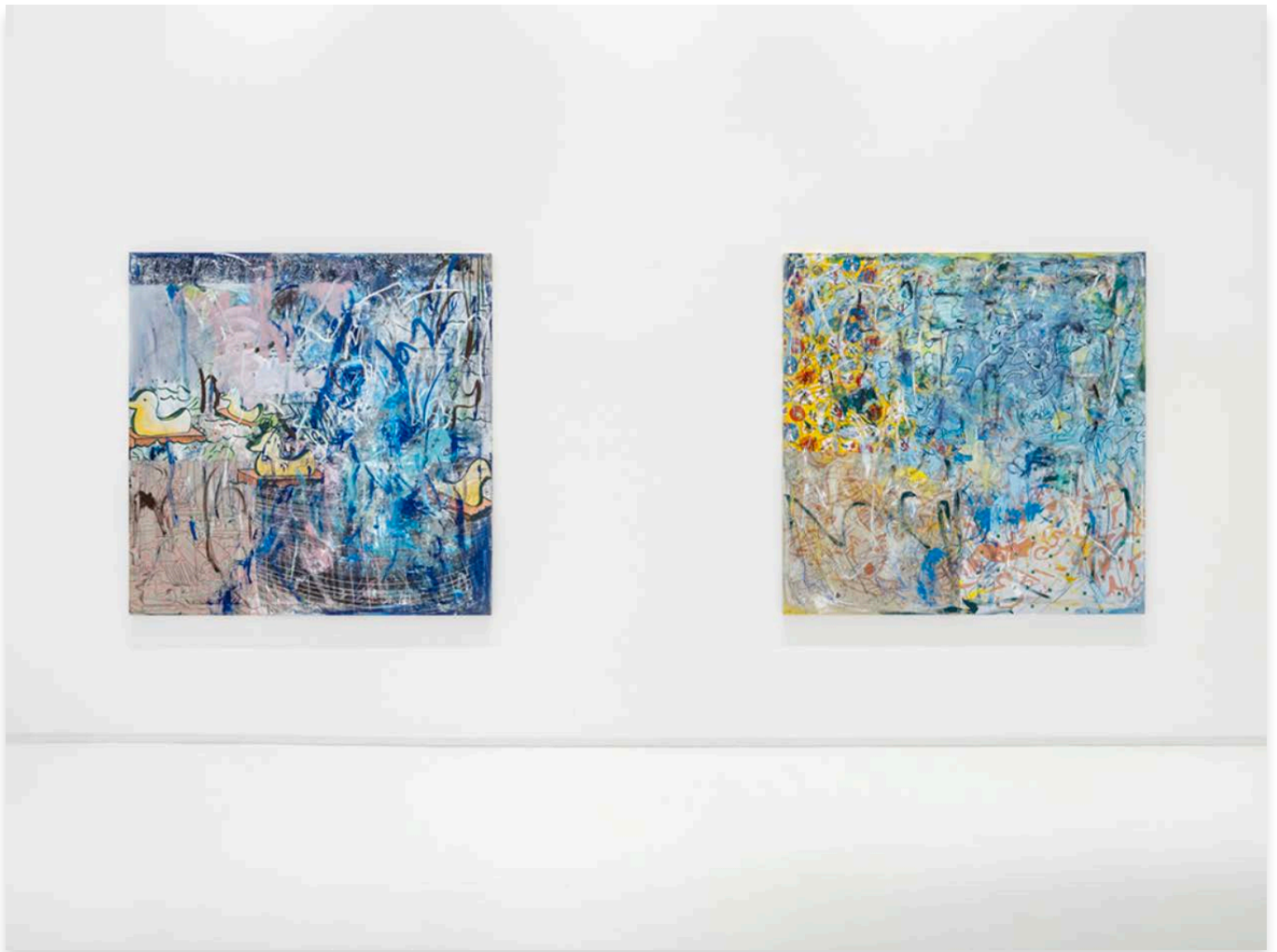
자유로운 드로잉과 과감한 색의 대비가 돋보이는 추상회화를 통해 미술계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성시경**은 이번 신작 <오델로>의 제목과 같이 규칙성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정한 패턴과 궤적 그리고 직관과 즉흥성에 온전히 맡겨진 자유로운 드로잉이 만들어내는 순수한 조형 언어를 탐구하고 있다. 최근 열렸던 작가의 두 번째 개인전 《오랜동안, 갑자기》(d/p, 2023)에서는 모듈형의 대형 벽화에서부터 가벼운 종이 작업에 이르는 다양한 회화적 양식을 실험했다. 이외 ‘추상’의 과정 속 절묘한 선택과 모호한 감각에 대한 동료 작가들과의 대화를 담은 《흰 그림》(팩토리2, 2023)을 비롯해, 비무장지대의 버려진 유휴공간의 장소성을 탐색하며 공간에 회화적 설치를 병치시킨 《DMZ 전시: 체크포인트》(캠프 그리브스 파주, 2023) 등을 통해 젊은 페인터로서 자신의 미감과 표현력을 넓혀 오고 있다. BB&M의 지난 단체전 《SUNROOM》(2023)에서는 건축적인 구조가 지닌 빛과 그림자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을 선보였다면 이번 신작에서는 더 과감해진 붓 터치와 드로잉이 한층 돋보이는 신작을 소개한다. "그간 그림을 그리거나 그림에 대해 생각하고 말할 때, 즉흥과 계획 그 둘 사이에 완고한 장벽이 있는 것처럼 여겼고 한쪽을 선택하고 그에 걸맞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제 보니 즉흥이 계획을, 계획이 즉흥을 서로 품고 있다."라고 말하는 작가는, 앞으로 더욱 유연하고 다채로워질 그의 작업 세계를 더욱 기대하게 한다.

EXHIBITION VIEW



Exhibition View, *Unsentimental Education*, BB&M, Seoul, 2024

EXHIBITION VIEW



Exhibition View, *Unsentimental Education*, BB&M, Seoul, 2024

EXHIBITION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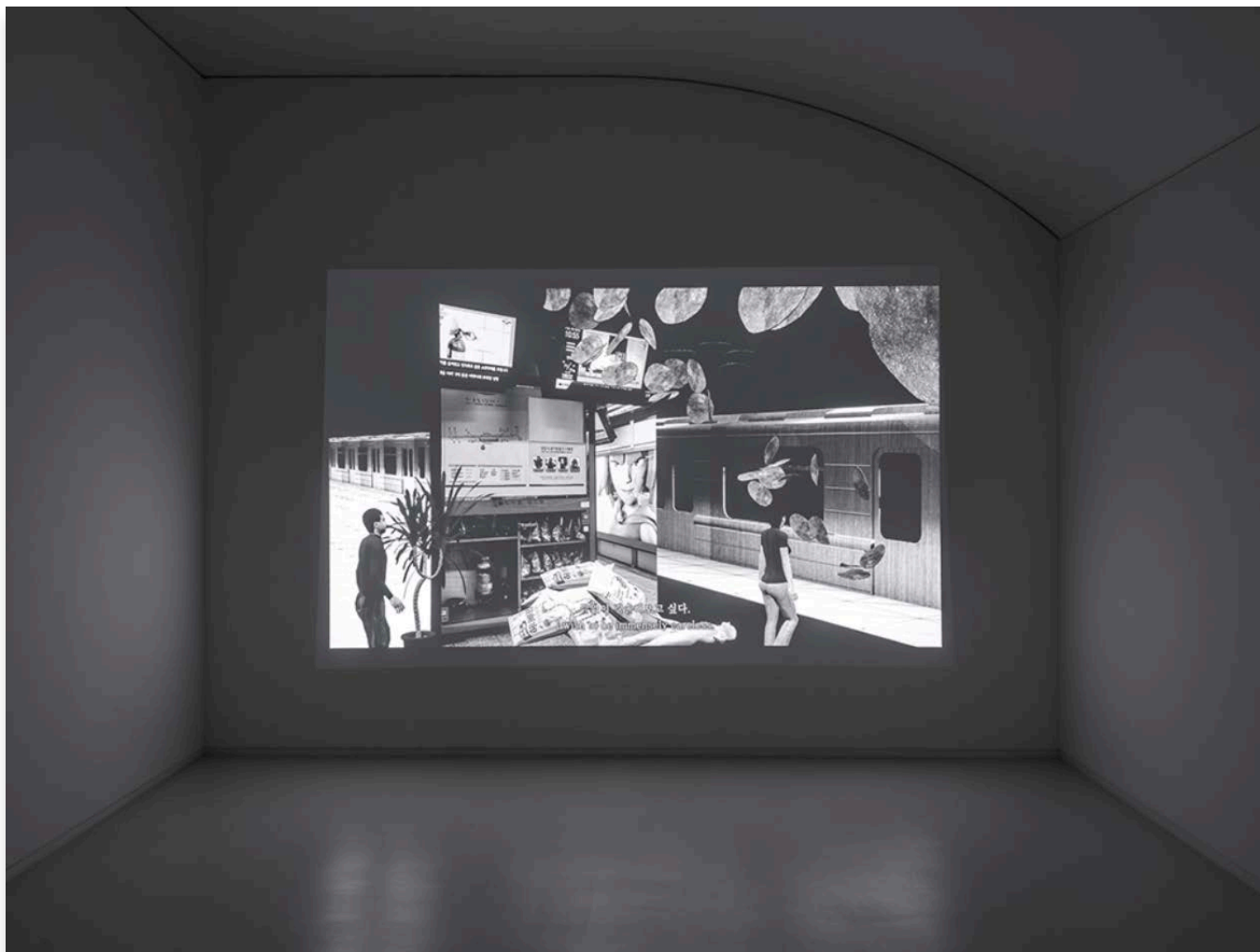
Exhibition View, *Unsentimental Education*, BB&M, Seoul, 2024

EXHIBITION VIEW



Exhibition View, *Unsentimental Education*, BB&M, Seoul, 2024

EXHIBITION VIEW



Exhibition View, *Unsentimental Education*, BB&M, Seoul, 2024



SELECTED WORKS



탁영준, <Wohin?>, 2022, 단채널 비디오, HD, 컬러, 스테레오 사운드, 8분 25초



SELECTED WORKS



김희천, <바벨>, 2015, 단채널 비디오, HD, 흑백, 스테레오 사운드, 21분

SELECTED WORKS



우정수, <Insomnia #15>, 2023, 캔버스에 아크릴, 116.8 x 91 cm



SELECTED WORKS



성시경, <Othello 5>, 2023, 캔버스에 유채, 116 x 91 cm

## ABOUT THE ARTIST

김희천 Heecheon Kim (b. 1989)은 헤이워드 갤러리(런던, 2023), 아트선재(서울, 2019), 아시아 미술관(샌프란시스코, 2018), 두산갤러리(뉴욕, 2018)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으며, 퐁피두 메츠 센터(파리, 2023), 율리아 슈토쾨 재단(뒤셀도르프, 2022), 리움미술관(서울, 2021), 서펜타인 갤러리 & NOWNESS (온라인, 2020), 카이로비엔날레(2019), 광주비엔날레(2018), 이스탄불비엔날레(2017) 등 국내외 다수의 단체 전시 및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주요 소장처로는 국립현대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한 네프켄스 재단(바르셀로나), FRAC Île-de-France(파리), FRAC Lorraine(메츠, 프랑스), KADIST(샌프란시스코) 등이 있다. 2023년 작가는 국내 가장 역량 있는 주요 현대미술가를 발굴해 온 에르메스 재단의 제 20회 미술상 수상자로 선정 되었으며, 2024년 하반기 개인전을 준비 중에 있다.

성시경 Sikyung Sung (b. 1991)은 2019년의 공간 형과 슈프루트에서의 첫 개인전 이후 2023년 d/p에서 개인전 《오랫동안, 갑자기》를 열었으며, P21과 휘슬 갤러리에서 2인전(서울, 2023)을 가졌다. 참여한 주요 단체 전시로는 《DMZ 전시: 체크포인트》(캠프 그리브스 파주, 2023), 《SUNROOM》, BB&M(서울, 2023), 《흰 그림》, 팩토리 2(서울, 2023), 《또 다른 물성》, 홍익대학교 박물관(서울, 2023), 《페리지 윈터쇼 2021》, 페리지 갤러리(서울, 2021), 등이 있다.

우정수 Jeongsu Woo (b. 1986)는 BB&M(서울, 2022), 두산갤러리(서울, 2020), 두산갤러리(뉴욕, 2020), 금호미술관(서울, 2018), OCI 미술관(서울, 2016),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서울, 2015)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으며, 제주비엔날레(2022), 문화역서울 284(서울, 2022), 국립현대미술관(과천, 2021), 일민미술관(서울, 2021), 서울시립미술관(2019), 국립현대미술관(청주, 2019), 광주비엔날레(2018) 등 국내외 다수의 단체 전시에 참여했다. 작가는 국립현대미술관(고양, 2017)과 두산갤러리(뉴욕, 2017)에서 레지던시를 지냈고, 금호영아티스트상(2017)과 SeMA 신진작가상(2017)을 수상했다. 주요 소장처로는 국립현대미술관, 금호미술관, 두산아트센터, 블랙스톤 그룹(서울)등이 있으며, 현재 2024년 상반기 아트선재에서의 개인전을 준비 중에 있다.

탁영준 Young-jun Tak (b. 1989)은 서울 출생으로, 현재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뜰리에 에르메스(서울, 2023), 율리아 슈토쾨 재단(베를린, 뒤셀도르프, 2023), 팰리스 엔터프라이즈(코펜하겐, 2023), 바노스 콘스트(스웨덴 크니스링게, 2023), 오버가은(코펜하겐, 2023), SOX(베를린, 2022), 프래그먼트(모스크바, 2021)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참여한 주요 기획전 및 프로젝트로는 하이 라인(뉴욕, 2023), 시카고 건축 비엔날레(2023), 리옹 비엔날레(2022), 킨들 현대미술센터(베를린, 2022), 베를린 마스터즈(2021), 베를린 비엔날레(2020), 서울시립미술관 세마병커(2019), 이스탄불 비엔날레(2017) 등이 있으며, 2021년 버거 컬렉션 후원의 TOY 베를린 마스터즈 상을 수상했다.



## ABOUT THE GALLERY & THE PRINCIPALS

2009년 제임스 B. 리가 설립한 아트 컨설팅 회사로 출발한 BB&M은 이불, 임민욱, 박찬경, 배영환 등 현재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한국 현대미술 작가들을 발굴하며 이들의 다양한 전시와 프로젝트를 총괄해왔다. BB&M 갤러리는 이러한 기존의 활동을 기반으로 제임스 B. 리와 주요 갤러리에서 꾸준히 경력을 쌓아 온 허시영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간이다.

BB&M은 2021년 10월,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받아온 동시대 최고의 한국 현대미술가 이불의 개인전으로 개관했다. 갤러리 전속 작가로는 이불을 포함해 한국 현대미술의 각 장르와 매체의 선두적 위치에 있는 임민욱, 배영환, 김희천, 우정수, 탁영준, 성시경 등이 있으며 MoMA, 휘트니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며 뛰어난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는 알렉스 도지(Alex Dodge)와 특유의 서정성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미코 벨드캄프(Miko Veldkamp)가 있다.

제임스 B. 리는 아트뉴스(뉴욕), 플래시 아트 인터내셔널(밀라노), 아트 아시아퍼시픽(홍콩) 등에서 필자로 활동했으며 PKM 갤러리 파트너, 아트선재센터 전시디렉터 그리고 광주비엔날레재단의 전시 부장을 역임했다.

허시영은 갤러리현대, PKM 갤러리, 갤러리 바톤 등에서 디렉터와 파트너로 오랜기간 활발히 활동해오며 리암 길릭(Liam Gillick), 올라퍼 엘리아슨(Olafur Eliasson), 토마스 스트루스(Thomas Struth), 로버트 라우센버그(Robert Rauschenberg) 그리고 단색화의 거장 윤형근 등의 전시를 총괄했다.